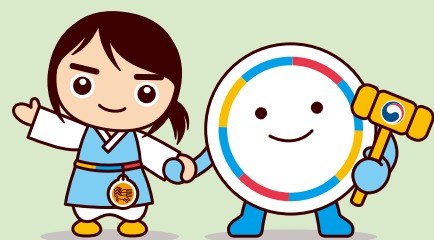




국민콜 110(정부민원안내)
부패·공익침해신고 상담 1398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1600-8172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청렴포털 www.clean.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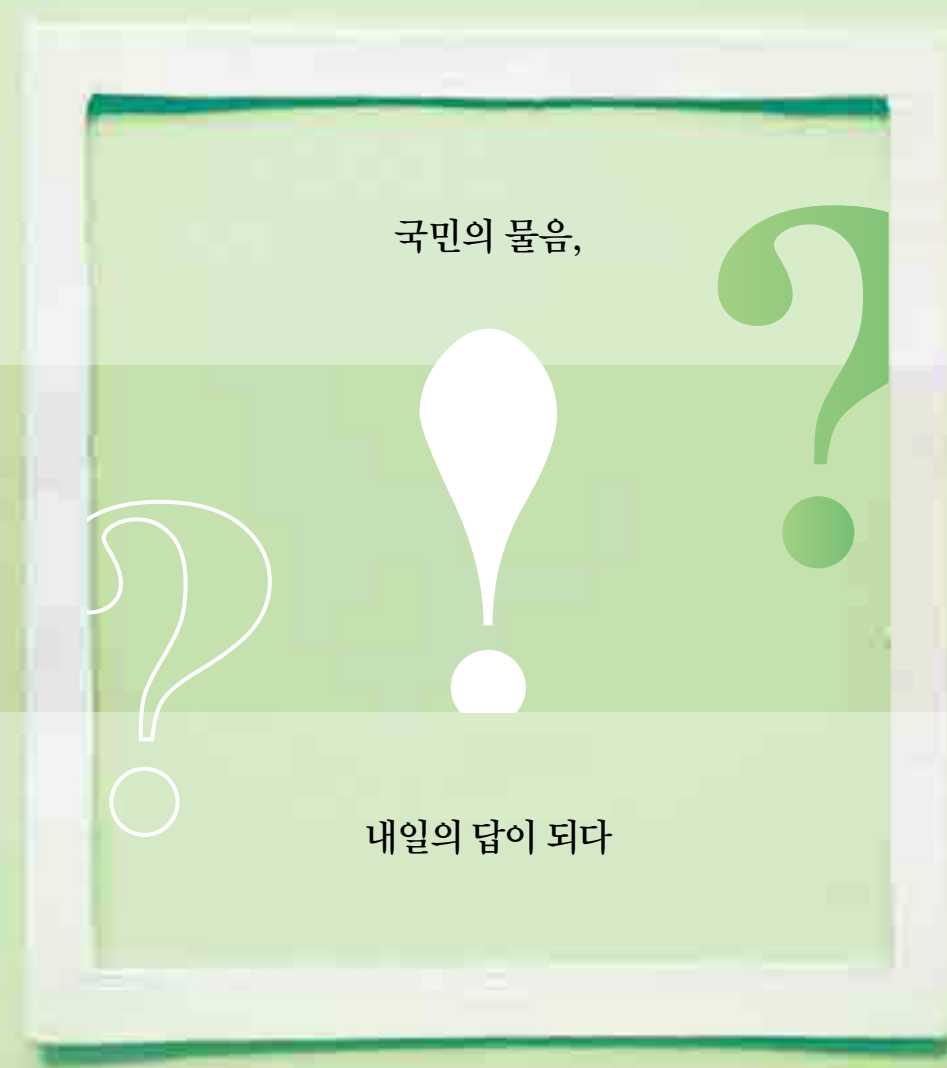


더 청렴하게
더 국민 곁으로

국민권익

ACRC NEWSLETTER 2020. Vol.66

AUTUMN



ACRC NEWSLETTER
2020. Vol.66

Autumn

국민의 물음, 내일의 답이 되다

국민의 물음에 대한
올바른 답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의 답이
희망찬 내일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국민의 곁에서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고충민원해결을 위해
끝없이 노력하겠습니다.

CONTENTS

04 권익 포커스 ①

국민의 고충을
말끔히 해결하는 국민권익위원회

12 권익 포커스 ②

‘부동산 대책’
국민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16 권익 빅데이터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

19 권익 인포

365call 언제 어디서든
국민콜 110

27 권익 뉴스

분기별 국민권익위원회 주요 이슈

30 권익 샅롱

고충민원 권익충만

32 권익 바이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권익 길라잡이

34 청백리포터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사례

38 청렴콘텐츠

2019년 청렴콘텐츠 공모전
사연(수기) 분야

42 나도 편집장

쌀쌀한 가을, 이렇게 대처하세요!

44 국민생각함

제1회 민·데 백일장

46 권익 트렌드&이슈

행복을 추구하는 ‘업글 인간’

48 권익 의식주

가을철 별미, 대하요리

50 #권익

독자의 소리 / 권익위 열독왕

국민 곁으로

Enter ↵

끝없는

국민의

말끔히

해결하는

현장소통으로

고충을

국민권익위원회



70년 전 6·25전쟁에 참전한
그리스 용사들을 위해
한국과 그리스를 잇는 현장조정회의 개최

Downloading [72%]

양구군 해안면 토지 290만 평,
토지정리 기반 마련 및 정주여건 개선 조정 결정

☒ 국민과 소통하기

확인



수해 피해 주민 민원 청취, 제도개선을 위한
충북 영동·충남 금산·진안 용담댐 현장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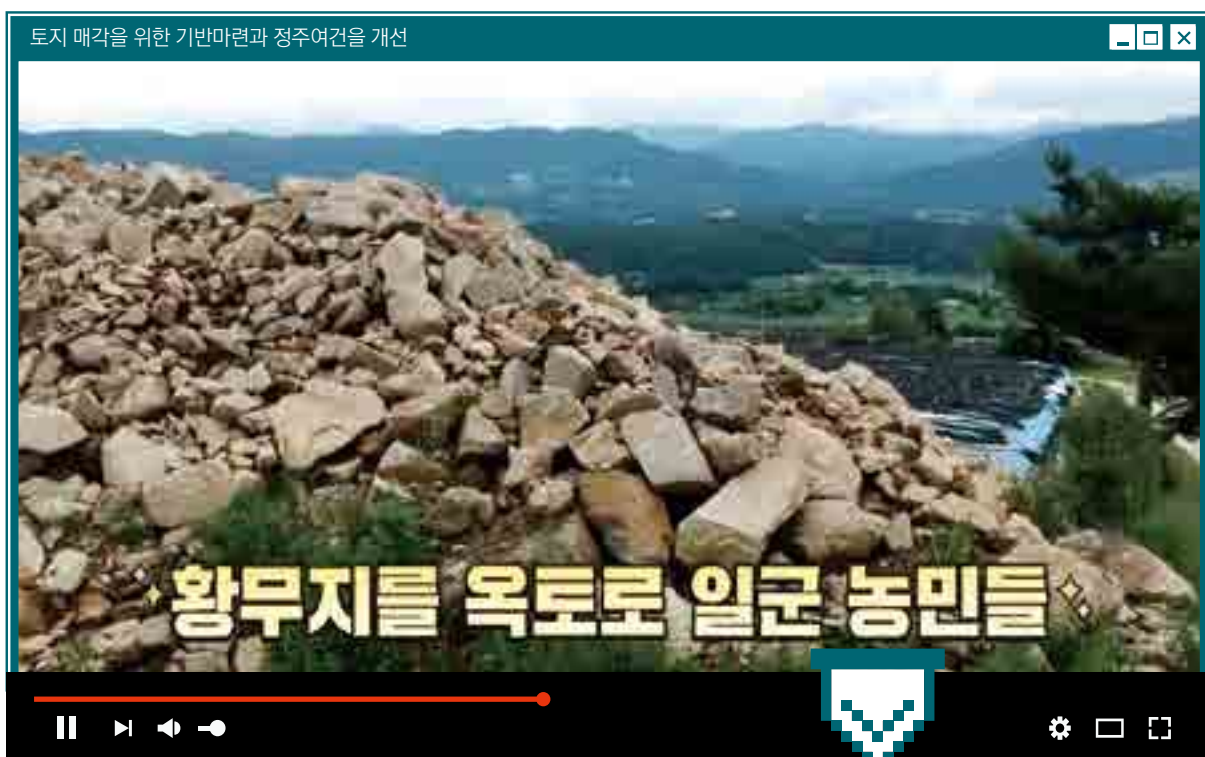
삭제하기



Search.1

민통선 내 ‘주인 없는 땅’

경작자의 70년 한 풀리다



양구군 해안면 토지 290만 평, 토지정리 기반 마련 및 정주여건 개선 조정 결정

한국전쟁 때 수복된 이후 70년 동안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토지 290만 평의 ‘주인 없는 땅(무주지)’을 일궈온 경작자들에게 국가가 토지 매각을 위한 기반마련과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안이 나왔다.

앞서 전현희 위원장은 8월 3일 직접 해안면을 방문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을 둘러봤다. 이어 8월 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해안면 주민들, 관계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토지 매각을 포함한 주민들의 안정적 주거 여건을 조성하게 하는 종합적 대책을 마련했다.

해안면 전략적 이주 정책

160 세대 **456**명
1956년 1차

100 세대 **1,450**명
1972년 2차

※ 이주 당시 토지를 무상으로 주고 일정 기간(10년) 후 권리인계를 약속함



+ 주인 없는 땅을 둘러싼 70년 갈등

해안면 토지는 광복 이후 북한의 통치 지역이었다가 한국전쟁 때 8번을 뺏고 뺏기는 치열한 전투 끝에 수많은 국군과 미국 해병의 희생을 담보로 1951년에 수복한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우리나라의 영토다. 당시 원소유주의 80% 이상이 북으로 피난했고 오랜 전쟁으로 척박해진 해안면 토지 관리를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는 1956년과 1972년 두 차례에 걸쳐 260세대, 1,394명에 대한 軍 주도의 정책 이주를 실시했다. 이어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불모지 개간 노력 등을 고려해 이주한 주민들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헌법상 38선 이북지역이 우리 영토임에 따라 북으로 피난한 자들의 토지 소유권이 법적으로 여전히 유효한 점 ▲행정이 전후 軍 주도에서 분업·전문화되어 관련된 기관이 10여개로 늘어난 점 ▲1983년 해당 토지에 인접한 일부 토지에 대해서만 국유화 및 대부 조치를 하면서 불공정·불평등 시비까지 대두되면서 문제가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들었다. 이후 해안면은 온갖 불법·탈법 행위가 난무하는 무법지대가 되었는데 ▲사실상 주인 없는 땅 수십만 평을 특정 개인이 점유하면서 대부료를 받고 경작권을 매매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또 지뢰 매설로 위험한 군사작전지역의 무단 개간이 지속됐고 똑같이 무상으로 경작하던 토지 일부가 국유화돼 대부료가 부과되는 등 수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주민들은 수차례 민원을 신청했고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제시됐지만 경작자들의 70년 한이 풀리지 않자 2017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다각적인 노력

국민권익위원회는 먼저 고유 권한인 조정권을 발동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조달청 등 소관부처를 민원에 참여시켰다. 소관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지난 3년 동안 현장방문과 주민설명회를 20여 회 개최하는 등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해당 토지 국유화 및 매각, 대부 등을 통해 마련된 자금을 기금으로 조성해 북한에 살고 있는 토지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에 대비하게 함으로써 문제의 결정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이러한 3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결국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법조치법’)이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해당 토지를 국유화하고 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구체적 내용을 실질적으로 규정하는 시행령이 8월에 시행됐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는 단순한 토지 매각을 뛰어넘어 그간 낙후되어 있던 해안면을 발전시키고 주민의 안정적 정주여건을 조성하게 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함께 시행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처리 결과

• 법무부	「특별조치법」 개정 추진
• 기획재정부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훈령 제정
•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
• 국방부	군작전선 완화 등 지역발전 지원대책 마련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소유권 생성 및 변동관리
•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등 지적·공부관리
• 조달청	국유화를 위한 행정적 절차 이행
• 강원도 양구군	지적 재조사사업 시행 등 제반 행정절차 지원
•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 대부 등 실무 추진
•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재조사사업일한 해안면 전 토지 측량실시



양구군 해안면 무주지 현장방문



잘 살진 못해도 ‘해안면에 안정적인 농촌 정착’이라는 좋은 역사가 기록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숙향 국유주 재배 농민

지금껏 저의 땅이라는 생각 없이 농사를 지어 왔습니다.
땅 소유권이 저의 앞으로 넘어왔을 때
그 만족감과 희열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 완전히 해결은 되지 않았지만,
지금 이렇게 문제 해결의 희망이 보인다는 것
자체가 세상에 다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무주지 경작자들의 70년 한이 풀리게 됐고, 양구군 해안면이 통일 대한민국을 대비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정부 내 적극행정과 혁신 행정을 선도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Search.2



고속도로변에
흘로 선 그리스군
참전기념비,
여주시민 곁에서
참전의 정신 이어간다

70년 전 6·25전쟁에 참전한
그리스 용사들을 위해
한국과 그리스를 잇는 현장조정회의 개최

국민권익위원회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여주휴게소에 있는 그리스군 참전기념비의 주변 환경 정화 등을 요청하는 그리스 한국전참전용사협회의 고충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7월 24일 경기도 여주시청에서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 세월과 함께 흘러갔던 용사들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여주휴게소는 그리스군 참전기념비가 처음 만들어질 당시만 해도 고요하고 한적한 동산이었지만 물류창고, 수소가스충전소, 흡연장 등이 들어서고 차츰 확장되면서 그리스 참전용사를 위한 예우와 선양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그리스 참전용사들은 참전기념비 이전을 위한 민원을 제기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조정회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외국에서 신청한 고충민원을 현장 조정으로 해결하는 자리로, 유튜브 ‘권익비전’과 스카이프 화상회의 생중계를 활용해 민원을 신청한 그리스 참전용사들과 현장을 연결했다.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 중재안을 마련했다. 국가보훈처는 내년 말까지 그리스군 참전기념비를 경기도 여주시 내의 영월공원으로 이전하며 경기도 여주시는 영월공원을 참전기념비 이전 부지로 제공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전 공사 후 현재 그리스군 참전기념비 부지를 정리하고, 향후 그리스군 참전기념비와 관련한 현충행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주한 그리스대사관은 이전 공사에 필요한 대리석 등 자재의 신속한 운반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리스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습니다. 저희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들의 헌신과 용기를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Search.3



긴급 이동신문고
용담댐 방류
수해현장
고충해결 착수

수해 피해 주민 민원 청취,
제도개선을 위한 충북 영동·충남
금산·진안 용담댐 현장 방문

충북 영동지역은 지난 8월 8일 집중 호우와 용담댐 방류로 135ha 농경지와 55채의 주택이 침수되고, 454명이 임시 대피소 생활을 하는 등 수해 피해를 입었다. (8월 기준)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동신문고를 열고, 고충 해소를 위해 수해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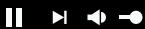
+ 국민의 곁에서, 국민의 소리를 듣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8월 8일 집중호우와 용담댐 방류로 발생한 피해 주민들의 고충 해소에 적극 나섰다. 피해 주민들은 하류지역을 무시한 일방적인 용담댐 방류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 버렸다며 용담댐의 안일한 대비태세 및 물관리 부재에서 발생한 인재라고 주장해오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8월 14일 ‘민원 상담반’과 ‘수해복구 지원반’으로 구성된 ‘긴급 이동신문고’를 편성해 피해현장에 투입했다. 전문조사관으로 구성된 ‘민원 상담반’은 피해지역 중 한 곳인 충북 영동군에 투입되어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다양한 고충을 청취하고 적극 해소시켰다. ‘수해복구 지원반’은 충남 금산군 피해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의 수해 복구에 힘을 보탰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집중호우와 댐 방류로 인해 발생한 수해에 대해 제도상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홍수피해와 같은 재난 등으로 인해 국민 고충이 발생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피해주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필요 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수해복구 지원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힘이 되는 든든한 국민권익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국민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부동산 대책

주택문제, 아동학대, 코로나19로 인한 대학등록금 반환 등 국민의 관심이 높고 사회갈등이 첨예한 사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발 벗고 나섰다. 국민권익위의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한데 모아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것이다. 7월 23일부터 8월 5일까지 진행된 첫 설문조사 ‘부동산 대책’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자.

*국민생각함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으로, 누구나 참여하여 정책 아이디어를 등록하고 토론, 설문 등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공간

‘부동산 대책’ 국민 의견수렴

정부의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7.10 부동산 대책’ 발표일 전후로 국민신문고에 총 4천여 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됐다. 국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국민권익위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민원이 폭증하자, 정확한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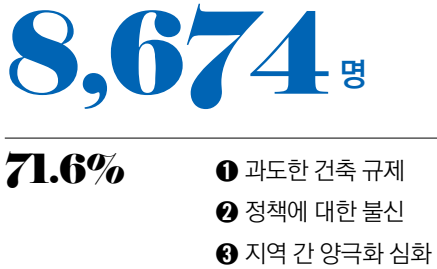
[설문응답자]

12,114^명

국민권익위, 국민의견 수렴 결과

국민의견 수렴결과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의 생각은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현 주택시장의 가장 큰 문제」에 대해 유주택자의 반 이상인 51.3%가 ‘과도한 건축 규제’를 꼽았으며 그 뒤를 ‘정책에 대한 불신’, ‘지역 간 양극화 심화’가 이었다. 반면, 무주택자는 과반수가 ‘지역 간 양극화 심화’, ‘정책에 대한 불신’, ‘수급 불균형’ 등의 다양한 원인이 문제라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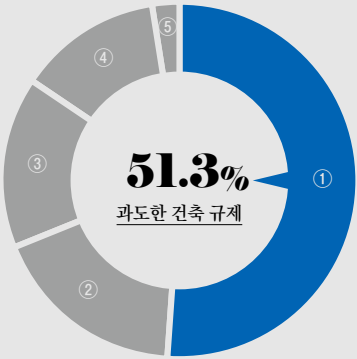
[유주택 응답자]



[무주택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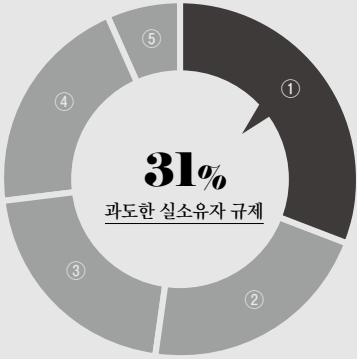


① 현 주택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주택 응답자]

- ① 과도한 건축 규제 51.3%
- ② 정책에 대한 불신 17.8%
- ③ 지역 간 양극화 심화 15.5%
- ④ 수급 불균형 12.9%
- ⑤ 기타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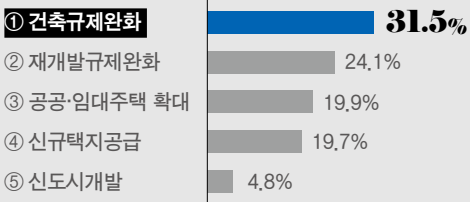
[무주택 응답자]

- ① 과도한 실소유자 규제 31%
- ② 지역 간 양극화 심화 21.3%
- ③ 정책에 대한 불신 20.9%
- ④ 수급 불균형 20.4%
- ⑤ 기타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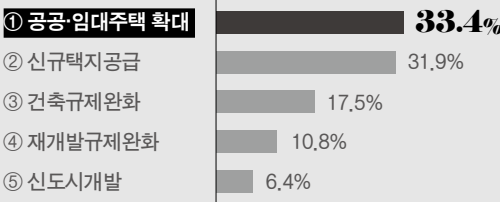
②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부동산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주택자는 ‘건축규제완화’, ‘재개발규제완화’, ‘공공·임대주택 확대’, ‘신규택지공급’ 순으로 답했다. 무주택자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신규택지공급’, ‘건축규제완화’, ‘재개발규제완화’ 순이었다.

[유주택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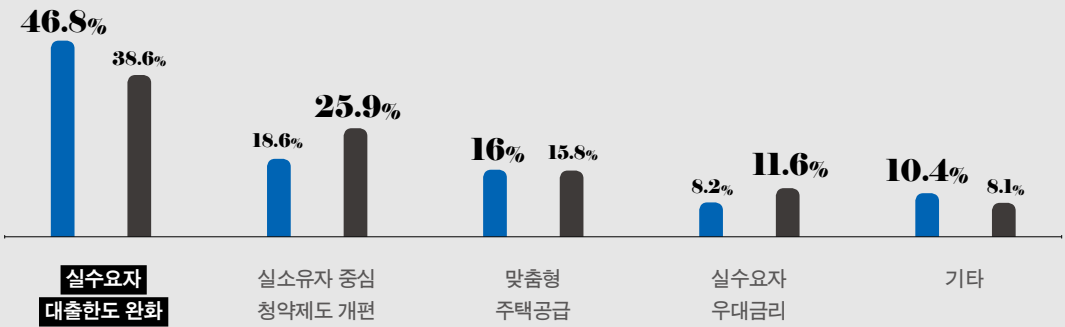
[무주택 응답자]



③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무주택자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두 그룹 모두 ‘실수요자 대출한도 완화’가 가장 시급히 필요한 대책이라고 답변했다. 그 다음으로는 ‘실소유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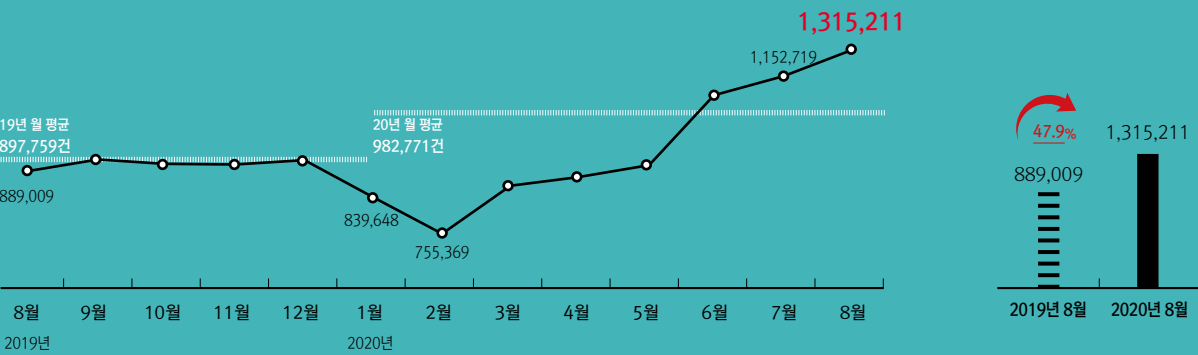
[유주택 응답자 ■] [무주택 응답자 ■]



이번 국민권익위 조사에서는 “그동안 부동산 정책 관련 여론조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무주택자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이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부동산 대책 설문조사를 통해 모인 국민의 의견을 기초로 관계부처에 정책·제도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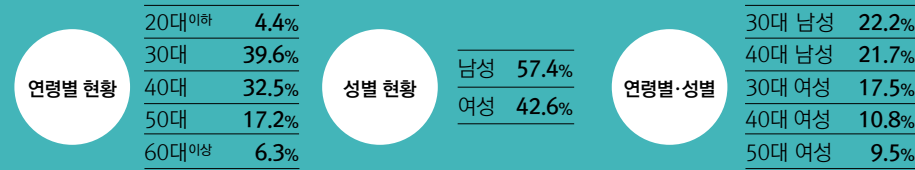
민원 추이

+ 2020년 8월 민원 발생량은 총 1,315,211건
+ 전월(1,152,719건) 대비 14.1% 증가, 전년 동월(889,009건) 대비 47.9% 증가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시도포털, 서울) 등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통계(*20.9.8. 10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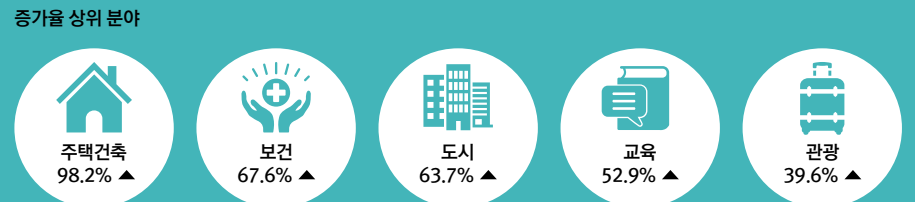
신청인 현황

+ 연령별로는 30대(39.6%), 성별로는 남성(57.4%)이 다수를 차지
+ 전월 대비 40대 남성(5.7% ↑), 30대 여성(5.6% ↑)이 많이 신청



분야별 현황

+ 분야별로는 경찰 분야(25.9%)가 가장 많고, 교통(18.9%), 주택건축(12.4%), 도로(8.1%), 교육(5.1%), 행정안전 (4.1%), 환경(3.2%) 분야 등의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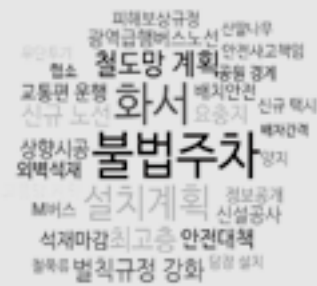


※ 전·월세, 코로나19 재확산 등과 관련하여 주택건축 및 보건 분야 증가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는 그간 공공기관에서만
공유됐던 민원 빅데이터를 국민에게 최초로 공개하는 서비스로, 모든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수집 민원을
기반으로 한 민원정보분석 정보도 제공한다. 이번호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분석한
‘2020년 8월 민원동향’을 소개한다.

민원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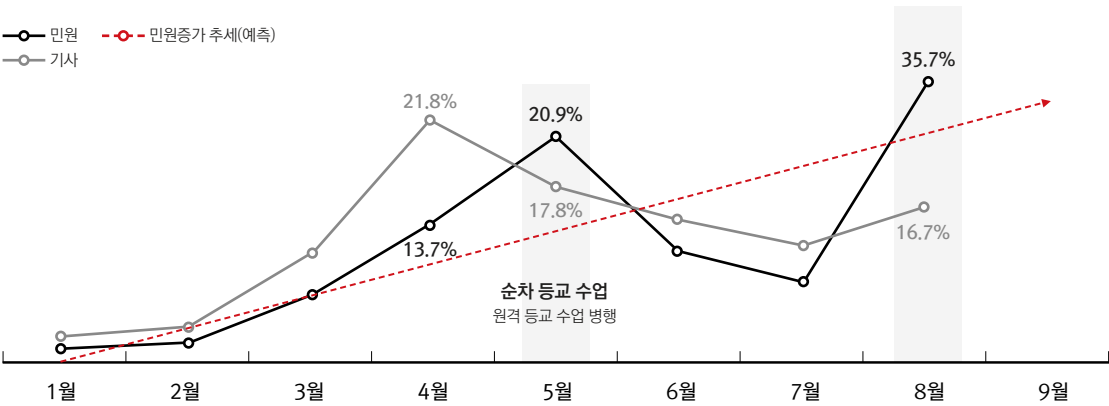
+ 8월 상위 민원키워드는 불법주차, 화서, 설치계획,
최고층, 철도망 계획, 벌칙규정 강화, 신규 노선, 요충지,
안전대책, 광역급행버스노선 등
+ 불법주차 등 ‘생활불편 신고’와 철도망 계획, 신규 노선,
광역급행버스노선, 교통편 운행, 교통망 계획, M버스 등
‘교통환경 개선’ 관련 키워드가 상당수 차지

Top 30 키워드					
순위	키워드	순위	키워드	순위	키워드
1	불법주차	11	상향시공	21	협소
2	화서	12	석재마감	22	양지
3	설치계획	13	외벽석재	23	안전사고책임
4	최고층	14	신설공사	24	공원 경계
5	철도망 계획	15	배치안전	25	담장 설치
6	벌칙규정 강화	16	교통편 운행	26	신규 택시
7	신규 노선	17	정보공개	27	배차간격
8	요충지	18	교통망 계획	28	산딸나무
9	안전대책	19	M버스	29	철쭉류
10	광역급행버스노선	20	피해보상규정	30	무단투기

9월의 관심키워드: 온라인(원격) 수업

코로나19 재 확산으로 2학기 학교수업이 원격으로 진행됨에 따라
온라인 수업에 대한 각종 불편 및 요구 등 민원 발생 예상

1 온라인 수업 민원 현황 (*20.1~8월)



- 처리기관은 교육청(49.0%), 중앙행정기관(46.3%) 이 다수
 - 교육부(36.2%), 경기도교육청(19.9%), 서울시교육청(9.3%), 고용노동부 등
- 신청지역은 경기(36.9%), 서울(21.9%), 인천, 부산, 경남 등의 순
- 신청인은 30대 > 40대 > 20대 순

2 주요 민원 유형

[온라인 수업의 질, 환경 등 개선]

- 화상 수업에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소리가 안 들리거나 화면이 멈추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느라 수업 진도를 못 나가고, 수업의 질이 저하되어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들은 공부할 방법이 없습니다.
-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더라도 학교 정규 시간에 맞게 출석 체크를 하고, 선생님과 학생들이 상호 교류하며 수업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또한 50분 수업 후 10분 휴식 등 규칙적인 수업 진행으로 아이들의 생활 리듬도 지켜줬으면 합니다.

[온라인 수업 반대]

- 온라인 수업이 시간 때우기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온라인 수업이 아닌 코로나19와 같이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을 시급하게 도입해야 합니다.

[온라인 수업 요구]

- 대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한다고 합니다. 통학 버스 안 간격이 좁고 밥도 마주보면서 먹는데 어떻게 거리 유지가 되나요?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물음 ()
내일의 () 답이 되다

국민의 물음

한눈에 읽는 청렴포털 A to Z

『국민의 물음 내일의 답이 되다』는 국민의 목소리
에 귀 기울여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과
정의 훌륭한 지침서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발
간되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국
민의 물음에 답을 제공하는 실시간 전화 민원 상
담 안내서비스, ‘국민콜110’을 집중 조명합니다.

권익 인포 ③ 국민콜110

- 20^p ① 정부민원안내
상담서비스 ‘국민콜110’
- 22^p ② 운영 성과 및 개선 사항
- 24^p ③ 잊지 못할 (상담사연)
- 26^p ④ 상담이용안내

내일 10월 () 10월 10일
() 등 롬 10월 10일

국민콜 110

‘국민콜 110’은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민원 업무 관련 상담과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표 정부민원안내 상담서비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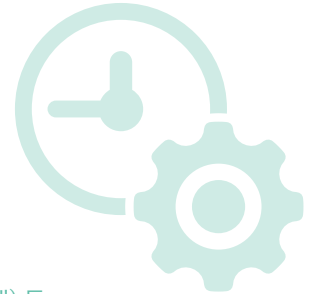
365call 언제 어디서든 국민콜 110



국민콜 110, (무엇)인가요?

공공기관의 민원 업무 관련 상담과 안내 서비스를 365일 24시간 제공하고 있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입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 없이 110번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2019년 10월 7일부터 통화요금이 무료로 전환되었습니다.

국민콜 110, (어떻게)운영되나요?



국민콜 110 운영 안내

상담분야	정부관련 모든 민원의 상담 및 안내 ※ 중앙행정기관(45개), 지자체(243개), 시·도교육청(17개), 공공기관(11개) 등 316개 기관과 전화연계 구축, 상담·안내
상담인력	전문교육을 이수한 상담사 228명
상담시간	24시간 365일 운영
기관 전문상담	평일(09시~18시) * 6개 기관 : 행안부, 보훈처, 식약처, 공정위, 통계청, 문체부
상담채널	전화, 문자, 수어, 온라인(채팅, SNS), 카카오톡

국민콜 110, (언제부터)운영됐나요?

국민콜 110은 2007년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전국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서비스 범위를 점차 확대시켜, 현재 모든 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한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전화 민원을 상담안내하고 있습니다.

국민콜110 주요 연혁

연도	주요 내용	연도	주요 내용
'19년	· 카카오톡 상담서비스 개시 · 문화체육관광부 연계 상담서비스 개시 · 국민콜 110 무료통화 서비스 개시	'13년	· 11개 부처 정부콜센터 정부과천청사 이전
'18년	· 공정거래위원회 연계 상담서비스 개시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사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예규) 시행	'12년	· 공공행정기관 화상수화통역 상담서비스 개시
'17년	· 경찰(112), 소방(119), 권익위(110) 간 신고전화 연계체계 구축	'11년	· 온라인(화상수화, 채팅, SNS) 상담서비스 개시 · 행정안전부 민원24 상담서비스 개시 ·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우편 고지제도 상담서비스 개시
'16년	· 보건복지부, 법무부, 관세청 연계 상담서비스 개시 · 비긴급 신고전화 상담센터 개소	'10년	· 스마트폰 모바일 앱 서비스 개시 · 국가보훈처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상담서비스 개시
'15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기상청 연계 상담서비스 개시	'09년	· 영상전화기를 이용한 수화상담서비스 시행 · 홈페이지 예약 상담서비스 시행 · 휴대폰 문자상담서비스 시행 · 1379 생계침해 신고센터 통합 및 상담서비스 개시
'14년	·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연계 상담서비스 개시	'08년	· 통계청 상담서비스 개시
		'07년	· 행정안전부 위택스 전자납부 상담서비스 개시 ·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개소 및 전국 서비스 개시

국민콜 110, 운영 성과 및 개선 사항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한 국민콜110의 노력으로, 현재 국민은 모든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을 전국 어디서나 110번을 통해서 24시간 상담·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상담사의 권익향상 및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갑질피해 민원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부민원콜센터 (통합·연계사업)

추진방식

각 부처 콜센터와 110의 번호통합 및 시스템을 연계해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국민콜 110	→	각 부처
정형·반복적인 일반민원에 대해 1차 상담		법령 해석, 사건의 진행과정 등 전문민원을 2차 상담

운영성과

① 지속적인 홍보 노력으로 국민콜 110 인지도 상승

2017년 인지도	2018년 인지도	2019년 인지도
37.9%	34.8%	39.1%

② 이용건수의 증가에도 93%이상 높은 응대율 및 만족도 초과달성

2017년 응대율	2018년 응대율	2019년 응대율
96.1%	95.2%	93.3%

만족도 목표 87점 : (’19년) 87.5점

’18년 하반기에 상담형태를 자체종결·기관연계로 구분하고, 설문항목을 3개 항목(신속성·친절성·전문성)에 1개 항목을 추가(자체종결: 설명능력, 기관연계: 이용편의성)하여 개편

(비긴급) 신고전화

연계상담 실시 긴급기관(112·119)에서 긴급출동을 위한 골든타임의 확보가 가능하도록 비긴급 전화를 국민콜110에서 상담·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계운영 현황 ① 112(범죄)·119(재난) 등 긴급신고전화(2개), 경찰민원콜센터(182-2) 등 비긴급 신고전화(18개) 20개 안전관련 신고전화와 연계 운영
② 비긴급 신고전화 상담콜센터 시범운영(’16.7.~10.), 정식서비스 개시(’16.10.28.)

상담사의 (권익향상)과 (갑질문제)에 대한 대책



상담사의 권익 향상

-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사 보호를 위한 업무 운영지침’*(예규)을 제정(’18.10.), 시행중이며, 감정치료·상담 지원과 스트레스 예방을 위해 전문업체(세움EAP(주))와 협약을 체결해 심리치유 지원체계를 마련(’18.8.~)
- ② 악성·강성 민원인으로부터 상담사 분리 및 담당자 교체, 감정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및 치료, 상설 고충처리기구 설치·운영 등
- ③ 공기청정기, 에어컨, 안마기 등이 구비된 상담사 전용 휴게실, 수면실과 상담사 휴식시간 등을 통한 휴식환경 개선
*’15년부터 상담사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과천청사 내 심리상담실 자율이용 독려

갑질피해 민원

- ① ’18년 9월부터 익명으로 갑질피해 채팅상담을 실시하여 갑질피해 신고대상 여부, 신고절차, 신고방법 등에 대한 안내 진행
- ② 향후 관련부처(국조실, 노동부 등)와 협의하여 민간분야의 갑질피해 상담도 체계적·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 계획
- ③ 현재 공공기관 갑질피해 분야에 대해서만 전문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민간분야 갑질피해 상담은 고용노동부에서 상담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음
※ 갑질민원 관련 법률상담을 원하는 경우 상담안내과 변호사에게 연결하여 처리중임

〈 갑질피해 상담 유형별 현황 ’18.9.14.~’20.7.31. 〉

계	공공분야의 민간에 대한 갑질				공공분야 내부의 갑질				기타	
	이익추구		불이익처우		이익추구		불이익처우		민간	신고
	공공분야	개인	업무적	인격적	공공분야	개인	업무적	인격적	내부갑질	일반 등
3,336	40	12	442	147	3	18	433	207	741	1,293



사연 ① 민원의 불편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민원 내용 [전화 상담]

“저는 노인연금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회사가 길 건너 건축공사를 하면서 수도관이 파열되어, 수도요금도 과다 청구했습니다. 용산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구청에서는 독촉했다고만 하고 요금은 수정해 주지 않아 노인연금을 받는 통장에 남아있는 잔액이 모두 출금되어 생활이 불가해 연락 드렸습니다.”

민원 처리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민원인에게 양해를 구한 후 용산구청 담당자에게로 통화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업무 종료시간인 18시가 되어 담당자와 통화 연결이 불가능했습니다.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에 민원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퇴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용산구청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담당자의 부재로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걱정에 가득 찬 민원인 생각에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죠. 저는 민원인의 급한 사정을 다른 담당자에게 전달했고, 답변을 기다리겠다는 말과 함께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오후, 다른 상담사로부터 하나의 쪽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용산구청 담당자에게 전화가 와서 잘 해결되었다. 내일 다시 전화 안주셔도 되니, 이 내용을 그 상담사에게 꼭 전해 달라.’는 내용을 그 민원인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원에게 전화를 드려 여쭙보니 민원인께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상담사가 전화를 계속해줘서 빠르게 처리 된 것 같아 감사하다.’고 연신 말씀하셨고, 기쁜 마음으로 상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민원 해결 후 소감

포기하지 않는다는 건 대단한 정신력과 체력을 다진다는 의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두지 않는 이상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지치지 않으면 끝까지 갈 수 있듯이 나의 민원인을 위한 상담도 마찬가지로 포기하지 않고 시도하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잊지 못할 (상담사연)

사연 ② 나와 만나기까지

민원 내용 [카카오톡 상담]

“코로나19 선별검사 질문이 있습니다. 18일에 귀국해서 집에서 혼자 자가격리 중인데 한국 유심이 없어 지자체와 연락이 불가능합니다. 인근 보건소에도 카카오톡 상담을 통해 문의했지만, 전화로 문의해 달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다른 경로를 통해 지자체로 연락할 방법을 알려주세요.”

민원 처리

민원인께서는 기침으로 인해 고통스럽고 코로나 증상으로 의심되어 매우 걱정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자가격리 지침을 지키면서 어떻게든 연락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해당 지자체로 민원인의 상황을 전달해야 했습니다. 저는 민원인의 성함, 카카오톡 아이디를 민원인 동의하에 제공받았습니다. 저는 해당 지자체로 전화 연결을 한 후, 현재 민원인이 처한 상황과 카카오톡 아이디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민원인에게 연락을 하실 수 있을까요?” 혹여나 연락이 되지 않을지도 모르는 걱정에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알려주신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마세요.”라는 답변과 함께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민원 해결 후 소감

반복되는 상담과 비슷한 민원 내용으로 익숙해진 제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원인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로와 방법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깊이 깨닫게 되었고, 앞으로도 저와 연결될 많은 민원인분들도 소중한 인연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도와드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민콜 110) 상담이용안내

국민콜 110은 현재 24시간 365일 운영하고 있으며, 기관 전문상담(행안부, 보건처, 식약처, 공정위, 통계청, 문체부)과 수어상담의 경우 평일 09~18시까지 상담을 진행합니다.

전화상담



- ① 국번없이 110번 (해외 : ☎ 82-2-6196-9110)
- ② 씨토크 영상전화 상담 : ☎ 070-7451-9012, 3, 5
 - ※ 수어상담 운영시간에만 가능
 - ※ 씨토크회선 이용자 무료, 안드로이드와도 호환이 가능하지만 별도의 통화료가 발생됨

문자상담



- ① 문자메세지 작성 후 '110'으로 문자전송
- ② 110홈페이지 → 문자상담 → 상담내용 및 연락처 입력 → 상담신청하기

채팅상담, 카카오톡상담



- ① 110홈페이지 → 채팅상담 → 전화번호 입력 → 채팅상담 신청하기
- ② 110홈페이지 → 채팅상담 → 카카오톡상담 신청하기
 - ※ “국민콜 110” 채널 추가 시, 더 편리하게 상담가능

기관수어통역이란? 청각장애인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시설주는 한국수어 통역 등의 편의를 제공해 민원처리를 진행합니다. 국민콜 110은 기관담당자, 청각장애인, 110수어상담사 간의 3자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갑질피해상담



- ① 110홈페이지 → 갑질피해상담 → 상담신청하기
 - ※ 카카오톡(채널 : 국민콜 110)으로도 갑질피해상담 가능

수어상담, 기관수어통역



상담시간 : 평일, 설·추석 09:00~18:00
※ 평일 18:00 이후 및 주말·공휴일에는 107 손말이음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채널별 수어상담 이용방법]

- ① 모바일 : 110홈페이지 접속 → 수어상담 → 민원인의 핸드폰번호 기입 후 상담신청 → 상담신청
 - ※ 크롬앱 또는 사파리앱 이용, 데이터 이용료 발생
- ② PC : 크롬을 통해 110홈페이지 접속 → 수어상담 → 민원인의 핸드폰번호 기입 후 상담신청 → 상담신청
 - ※ 화상카메라 연결 필수
- ③ 씨토크 영상전화기 : 070-7451-9012,3,5 로 전화
 - ※ 씨토크회선 이용자 무료, 안드로이드와도 호환이 가능하지만 별도의 통화료가 발생됨

[기관수어통역 이용방법]

- ① PC : 크롬을 통해 110홈페이지 접속 → 수어상담 → ‘기관담당자 연락처 기입’ 후 상담신청
 - ※ 화상카메라 및 헤드셋 연결 필수

ACRC NEWS

2020 국민권익위원회 주요 이슈

국민권익위원회가 새롭게 추진하는
제도와 정책 이야기



부패인식지수 3년 연속 상승 ‘국민권익위의 역할 크다’는 평가

경제발전에도 긍정적 영향 미쳐

자세히 알아보기

홈페이지 www.acrc.go.kr
국제교류담당관실 ☎ 044-200-7158

OECD EDRC(경제개발검토위원회)가 올해 8월에 발간한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정부의 부패 척결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한국은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와 부패통제지수에서 최근 3년간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으며, 다른 지표에서도 순위가 상승했다.”라고 밝힌 것이다. 특히 하위 공무원에 대한 부패가 사라지게 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이 컸다고 언급했다. ‘한국경제보고서’가 발간된 이후 부패와 관련된 내용이 비중 있게 다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부패 척결이 경제발전에도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적시하기 위함이다. 최근 2016년 기준으로 5년간 부패인식지수가 10점 상승하면 GDP 67조 원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2020 국민권익위원회 이슈

2020 국민권익위원회 이슈

2 DATE.

07.24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 적발 건수 매년 감소 추이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1,212개의 채용실태를 점검했다. 이는 2017년 이후 시행된 세 번째 조사이며, 2018년 실태조사 이후의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실적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총 83건의 비위를 적발했고, 이 중 수사에 의뢰한 건은 9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전년도인 2017년, 2018년이 전수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각각 75.4%, 54.4% 감소한 수치다.



자세히 알아보기

홈페이지 www.acrc.go.kr
채용비리근절추진단 ☎ 044-200-7127

3 DATE.

08.03



여학생 교복, 스커트 외 바지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2015학년도부터 전국 시·도 교육청은 입찰을 통해 학생 교복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낮은 품질과 촉박한 구매기간, 여학생의 바지교복 선택권 제한 등 교복 구매 및 착용과 관련한 민원이 빈발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일선 학교에 납품된 교복을 표본 조사해 품질을 확인하고, 교복 치수 측정 시 보호자 동반이 가능하도록 주말을 포함해 기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또한, 여학생 하의 품목을 ‘스커트/바지’로 명시해 바지 교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히 알아보기

홈페이지 www.acrc.go.kr
제도개선총괄과 ☎ 044-200-7216

4 DATE.

08.06



시험 시, 휴대전화 전원 끄고 감독관에게 제출해야만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휴대전화를 켜둔 채 외투에 넣어 응시자 대기실 쪽에 제출한 것은 부정행위가 아니라며, 이의를 제기하는 청구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구인이 휴대전화 전원을 차단하지도 않았고, 감독관이 관리할 수 없는 상태로 임의의 장소에 놓아둔 것은 휴대전화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수험생들이 휴대전화를 반드시 끄고 제출해야한다는 경각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히 알아보기

홈페이지 www.acrc.go.kr
행정교육심판과 ☎ 044-200-7844

5 DATE.

08.14



실수로 폐업신고해 영업권 잃었다면, 구제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식품접객업자가 영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행정제도에 대한 무지로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대신 ‘폐업신고서’를 제출해 영업권을 잃은 경우,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폐업신고를 취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이는 잘 모르고 한 폐업신고 때문에 큰 금액의 손해를 입고, 생계마저 막막해진 국민을 고충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다.



자세히 알아보기

홈페이지 www.acrc.go.kr
복지노동민원과 ☎ 044-200-7422

6 DATE.

08.28



공공재정 누수방지 이행실태 27개 기관 조사 착수

국민권익위원회는 그간 지속적인 부정수급 발생으로 재정낭비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높은 분야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여, 8월 31일부터 본격적인 실태 점검에 나섰다. 대표적인 점검분야로는 R&D사업, 사회복지시설지원, 사회적기업, 그 외 체육회지원, 농어업지원금, 어린이집지원금 등이다. 국민권익위 전현직 위원장은 “앞으로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세히 알아보기

홈페이지 www.acrc.go.kr
공공재정환수제도과 ☎ 044-200-7642

7 DATE.

08.31



국민권익위,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 간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는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등을 함께 기재해 우편·인터넷으로 접수하거나,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을 통한 신고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을 통해 보호하는 것은 물론, 기여도에 따라 최대 30억 원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자세히 알아보기

홈페이지 www.acrc.go.kr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 044-200-7584

사연
1

지진 피해자 국가장학금 지원

"제가 직장 일로 바빠 어머니가 대신

신청했을 뿐입니다. 함께 사는 한 가족인데,

국가장학금 신청 자격이 안 된다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무슨 일인가요?

포항에 거주하는 민원인은 대학생 딸을 둔 아버지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대규모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즉각적인 피해복구 대책을 내놓았고, 민원인은 교육부가 지진피해가구를 위해 대학 장학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을 알고 신청하려 했으나 직장 일로 바빠, 민원인은 어머니가 대신 신고를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장학금의 지원대상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상 재난지원금 대상 가정의 학부 재학생으로 학생 본인이나 부모 또는 배우자가 신고해야 하는데, 민원인의 어머니가 신고하여 지원이 불가하다며 거부했다. 민원인은 교육부의 지원 거부 사유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 어떻게 해결했나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민원인과 어머니는 지진피해를 입은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3대가 함께 거주하는 가정의 경우 실질적으로 민원인의 어머니로 신고한 것이 잘못됐다고 보기 힘든 대목이다. 대상자 범위를 학생 본인과 부모로 지나치게 좁게 한정했다는 비판도 가능했다. 권익위는 즉각 교육부에 민원인을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고, 교육부도 권익위의 판단에 공감해 민원인의 자녀에게 국가장학금을 특별 지원하도록 조치했다. 행정이 있는 곳에서는 관련 절차가 필요하다. 절차가 적법성을 보장하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만능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별재난으로 지원을 하기 위한 절차라면 더욱 그렇다. 관련 절차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행정집행 과정에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 시사점

학생 본인의 조부모에게는 재난지원금(장학금) 신청자격이 없었더라도, 조부모가 학생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살고 있었고, 실질적인 재난피해자이자 피해가정의 구성원이라면 신청자격을 본인, 부모, 배우자로 한정하지 말고 신청자격을 확대하여 불필요한 국민고충 발생 소지를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고충 민원



권익 총만

안녕하세요. <권익 살롱> DJ 권입니다. 저희 코너는 국민의 고충과 불편 해결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활약상을 조명합니다. <권익 살롱> 세 번째 이야기. '지진 피해자 국가장학금 지원'과 '102년 된 철도교 확장을 통한 상습 홍수 피해 해소'에 관한 고충민원 사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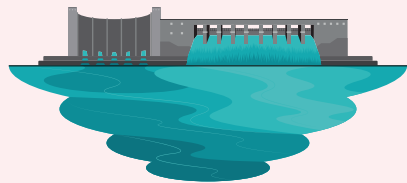
오늘의 사연

● 지진 피해자 국가장학금 지원

재난지원금(장학금) 신청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피해 가구라면 지원해야...

● 102년 된 철도교 확장을 통한 상습 홍수 피해 해소

주민들이 상습 침수 피해를 입고 있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피해방지 대책을 적극 강구해야...



사연
2

102년 된 철도교 확장을 통한 상습 홍수 피해 해소

"물이 범람하는 걸 알면서도

그걸 계속 방치한다면,

그것이 인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 무슨 일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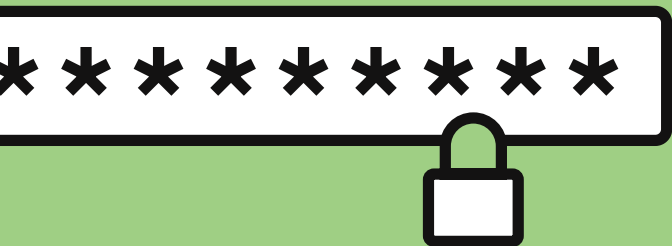
경원선 철도가 지나는 거림천교(교량) 인근 마을주민의 이야기다. 이곳 주민은 비만 오면 물이 넘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설치된 거림천교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천 상류 폭은 18m인데 비해, 다리 길이가 6m 밖에 되지 않아 집중 호우 때면 불어난 물이 좁은 곳으로 밀려들며 넘쳤다. 번번이 일대 마을과 농경지가 침수돼 마을 주민에게 잦은 피해가 발생했다. 665명에 달하는 마을 주민은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간곡한 호소를 보냈지만,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과 연천군은 철도교와 소하천 교량을 동시에 확장하지 않을 경우 재해 방지에 효과가 없고, 무엇보다 사업비가 약 140억 원 이상 소요된다는 곤란해 하고 있었다.

● 어떻게 해결했나요?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관계기관의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가 가능한 세부 사안을 구분하고, 우선순위를 매겨 조정해 착수했다. 4차례의 현장조사와 20차례의 기나긴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합리적 해결 방안을 도출해냈다. 공단은 철도교 폭을 18m이상 확장할 사업비로 20억 원을 확보하고, 연천군은 철도교 확장 시 교량 확장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사업비는 연천군과 군민안전처가 각각 60억 원씩 부담하기로 했다. 공사 진행 시 주민불편도 고려했다. 공단은 확장 공사 시 예산절감을 위해 경원선(동두천~백마고지역) 구간의 운행을 중단하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동두천역~연천역 구간은 열차는 운행기로 했다. 이에 연천군은 연천역에서 하차한 승객을 백마고지역까지 수송하기 위해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승무원 숙소를 제공하기로 했다. 2018년 12월 드디어 철도교와 교량의 확장공사가 준공 완료되었다.

● 시사점

여러 기관의 이해관계가 얹혀 있어 의견조율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마을주민이 수십 년 동안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고 있다면 기관 간 대화, 타협 등을 통해 철도교와 교량 확장 등의 적극적인 수해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에 있어 어떠한 경우라도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는 '인재'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권익 길라잡이

세상을 바꾸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누구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에 맞선 신고자를 좀 더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2020년 11월 20일부터
공익침해 행위 대상 법률이 확대됩니다.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게 촘촘해진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소개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란?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 생활 안정과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입니다. 공
익신고는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을 침
해하는 행위를 신고·제보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으로, 누
구나 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 신변
보호 등의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

상담번호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
온라인 신고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방문,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

더 탄탄하고 든든해진 ‘공익신고자 보호법’ 기존 284개 공익침해
행위 대상 법률에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률 위반 행위 182개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이
는 사회적 중요성과 시급성을 갖는 법률로 올해 11월 20일부터 본
격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2011년 9월 30일 「공익신고자 보호
법」 시행 이후 역대 가장 많은 대상 법률이 추가된 것으로 공익신고
대상이 대폭 확대되어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신고자들까지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법률 284개
개정 이후 **467개** (신규 추가 182개)

※ 기존 284개 중 삭제된 법률 3개, 분법된 법률 4개,
신규 추가된 182개 법률이 더해져 총 대상법률 수는 467개입니다.

추가되는 공익침해행위 TOP 5

- +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행위
- + 아동학대로 중대한 상해를 입히는 행위
- + 본사에서 대리점에 상품·용역 구입을 강제하거나
판매목표를 제시·강제하는 행위
- + 병역의무자의 병역기피나 면탈 행위
- + 당사자의 동의 없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신체촬영,
촬영물 반포·판매·임대·제공 행위 등



안심할 수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 비밀보장

공익신고자(협조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신분 유출을 우려하는 공익신고자를 위해
번호상 이름으로 신고, 자료 제출, 의견진술 등을 진행하는 제도

+ 불이익조치 금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분상·인사상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음

+ 위원회 보호조치 결정

- 해고, 징계 등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보호조치 신청 →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불이익 조치자에게 원상회복 등 요구
- ※ 불이행시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
(매년 2회, 1회 최대 3천만 원) 부과

+ 신변 보호

- 일정기간 동인 특정시설에서 보호
- 참고인 또는 증인 출석, 귀가 시 동행
- 일정기간 동안 신변경호,
대상자 주거 주기적 순찰 등의 보호를 받음
- ※ 공익신고자·협조자 뿐 아니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도 보호 가능

+ 형벌, 징계·불리한 행정처분 감경, 면제

- 형의 감경, 면제
- 징계 및 행정처분의 감경, 면제
-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배제
- 공익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금지

+ 신고방해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 누구든지 공익신고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신고 취소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
-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 부여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해당 처분 행정청을 관할하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호에서는 '리웨이 씨'의 사례를 통해 행정심판을 통한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모습을 조명해 본다.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사례

시누이와의 싸움이 외국인의 체류 자격 거부사유?

중국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리웨이씨 이야기



...

웹툰 리포터

2008년 중국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리웨이 씨는
풍족하지 않은 살림살이였지만
지체장애인 남편과 3명의 자녀를 양육하며
93세의 시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2015년 추석, 친정을 찾은 시누이는 시어머니 봉양이
소홀하다며 리웨이 씨에게 손찌검했고,
감정이 격해져 상호 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시누이와 화해로 처벌 없이 해결됐습니다.

웹툰 리포터

결혼으로 한국에 체류한 지
10년이 된 리웨이 씨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결혼이민(F-6) 자격을 영주(F-5)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시누이와의
폭행 사건이 영주자격취득요건의
‘품행 단정’에 충족하지 않라며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거부당했습니다.



안됩니다.

청천벽력 같은 결과에 어찌할 바를 몰라 답답함을 호소하던
리웨이 씨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체류자격변경허가 거부’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0년간 장애인 남편과 세 명의 자녀를 양육하며
고령의 시어머니를 모신 리웨이 씨의 품행이
시누이와 있었던 한 번의 폭행사건만으로
영주체류자격을 거부할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를 취소한다라고 결정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여기 한번 청구해보자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은

행정부청으로부터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국민이
무료로 신속·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행정심판 청구인에게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대리인 선임을 무료로 지원 ※

| 행정심판 청구방법 |

온라인 청구 : www.simpan.go.kr 전 화 상 담 : 국민콜 110

서 면 청 구 : 신청서 서식에 작성후 우편 또는 직접제출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중앙행정심판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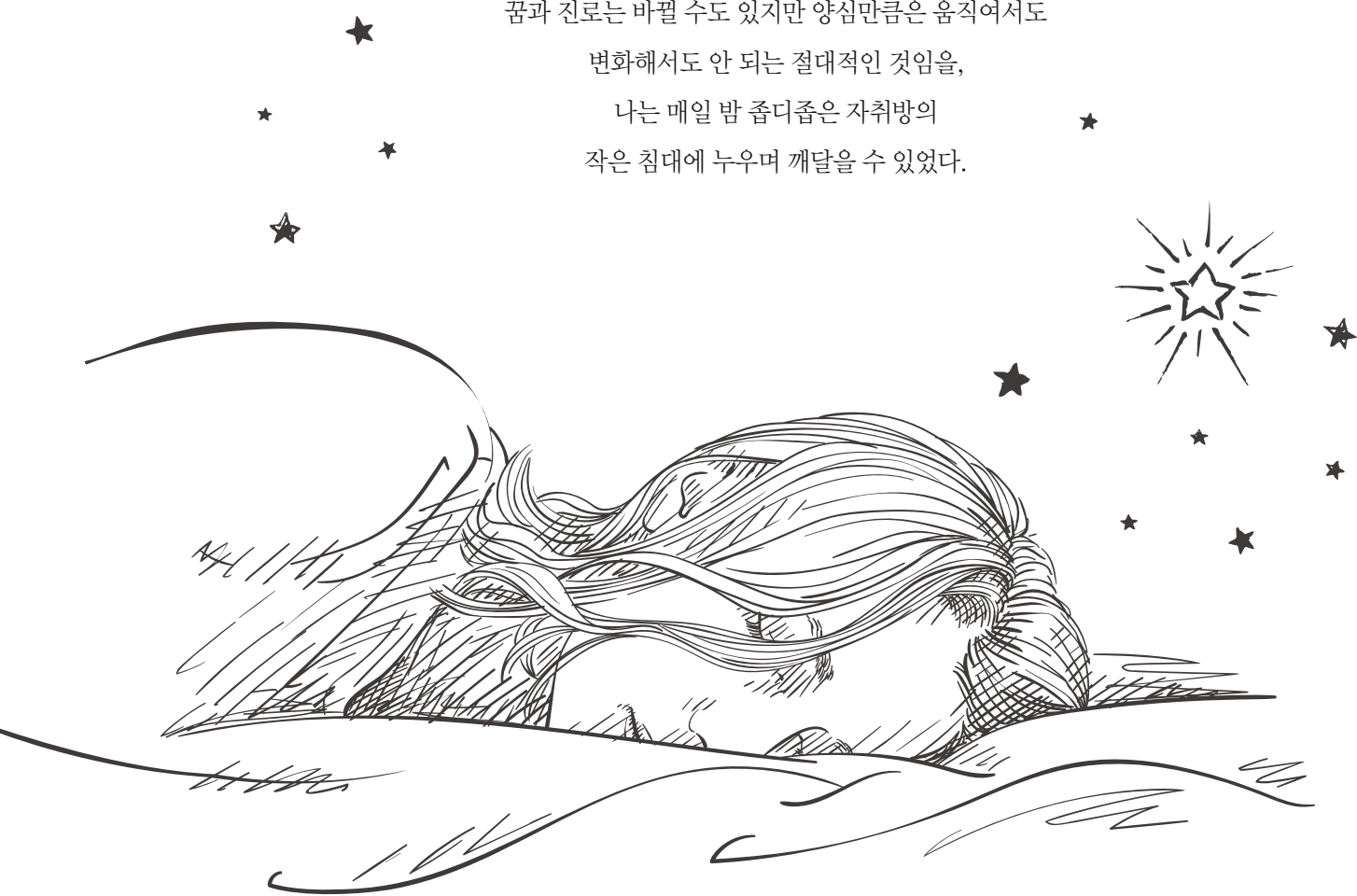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두 다리를 쪽 뺀고 단잠을 잘 수 있는 것.
양심을 지킨 자만이 맞이할 수 있는 그 편안한 밤을 세상
그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
참으로 거룩하고 고요한 그 밤을…….

2019년 청림콘텐츠 공모전
사연(수기) 분야

꿈과 진로는 바뀔 수도 있지만 양심만큼은 움직여서도
변화해서도 안 되는 절대적인 것임을,
나는 매일 밤 좁디좁은 자취방의
작은 침대에 누우며 깨달을 수 있었다.



꿈보다 현실. 희망보단 생계를 위해 시시때때로 변해야만 했던 나의 진로.
화가가 되고 싶었지만, 미대에 입학할 형편이 되지 않아 패션디자인과에
진학했다. 대학 시절 내내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했지만, 공부 또한 등한
시하지 않으려 시간틈을 쪼개 코피까지 쏟으며 노력해 얻었던 공모전 입
상 경험도 여럿 있었으니 취직이 어려우리라곤 예상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언제나 세상의 벽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기만 하였다. 학자
금 대출은 밀려 있었고 당장 이번 달 월세도 걱정인 마당에 남들처럼 이것
저것 따지거나 쥔 수는 없었다. 꼬박꼬박 월급을 주는 곳이라면 나의 꿈도
전공도 상관없다 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기에 이곳저곳 닥치는 대로
이력서를 제출하였다.
다행히 침구를 만드는 중소기업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고 나는 그렇게 꿈
에 그리던 직장인이 되었다. 딸자식 대학 공부시키기 위해 허리가 휘청이
도록 농사일하시던 홀어머니와 아직 어린 두 동생에게 조금이나마 보탬
이 될 수 있으리란 생각에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뻐다.



의상디자인과인 나는 낯설고 생소한 침구 회사에 다니면서 업무를 배우기 위해 고군분
투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다른 이 회사에서 쓸모 있는 직원이 되기 위해 처음
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은 꽤 버거운 일이었다. 게다가 크지 않은 회사였기에 인
력은 부족했고 업무를 숙지할 수 있는 기한 또한 넉넉히 주어지지 않았다. 눈치껏 선배
들의 일을 뒤치다꺼리하면서 제 몫의 일감도 찾아야 했고 자신의 자리 또한 재빨리 만들
어야 했다. 어머니께 드릴 빨간 내복을 사놓고서도 고향집에 갈 수 없을 만큼 시간이 부
족했지만 밀린 학자금 대출 이자를 내고 월세를 충당할 수 있었다.

일 년여가 다 되어갈 무렵에야 내가 디자인한 이불이 OK 사인을 받을 수 있었다. ‘드디
어 인정받는 진정한 회사원이 되었다!’ 하는 성취감으로 뿌듯했지만, 그도 잠시.
“시영 씨! 동대문 ○○업체에 가서 이불 원단 고르고 오세요. 나머지 것은 내가 진행할게.”
과장님의 말씀에 들뜬 마음을 안고 원단을 대어 주는 업체에 가보았지만, 그곳에는 내가
디자인하고 샘플까지 만들었던 원단과는 전혀 다른 것밖에 없었다. 실망스러운 마음으
로 돌아온 나는 과장님께 찾는 원단이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은 이상스러우리만
큼 단호하셨다.
“그냥 얼추 비슷한 것이라도 고르면 되지 뭘 그리 까탈스럽게 굴어. 신입은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밤낮없이 고생하며 만든 나의 첫 결과물이었다. 원단의 소재가 달라지면 디자인까지 달
라 보이는 침구의 특성상 아무것이나 고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과장님께 의사를 전
달했지만 번번이 묵살될 뿐이었다.
샘플을 만들 때 원단을 구입했던 업체에는 내가 원하는 원단이 있었고 훨씬 저렴한 가격
에 구매할 수 있다고까지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은 묵묵부답이었다.



그리고 며칠 뒤.

“시영 씨! ○○업체에 새로 들어온 원단도 많다니까 오늘은 결정하고 와요. 시간 늦어지면 다음 시즌 신제품으로는 못 나가는 거 알지? 그러니 오늘 꼭 선택하고, 참 이진 차비로 쓰시고!”

과장님이 던져 주신 하얀 봉투 속에는 무려 백만 원.

1,000,000이란 숫자가 뚜렷하게 적혀있는 백화점 상품권이 들어 있었다. 가슴은 두근두근 방망이질 치고 있었고 동시에 직장동료들이 소곤거리며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귓가를 스쳐 지나갔다.

“박 과장님이 ○○원단에서 뒤통 업청 받는다고 하던데?”

“부하 직원들이 디자인한 건 무조건 ○○원단으로 하라고 강요하잖아. 다 이유가 있겠지.”

‘설마 아니겠지.’ 했던 동료들의 이야기는 내 손에 쥐어진 상품권과 함께 진실이 되어 돌아오고 말았다. 거래처에서 뒤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러 가는 직원에게 현금과도 같은 상품권을 줄 이유가 전혀 없지 아니한가.



복잡한 마음을 안고 해당 업체에 다시 가보았지만 내가 원하는 소재의 원단은 없었다. 비슷한 원단이 있긴 했지만 그 원단은 내가 샘플로 제작했던 원단보다 무려 두 배 이상 가격이 높았다.

당장 원단을 정하지 않으면 일정에 차질이 생긴다는 과장님의 말씀과 내 싸구려 핸드백 속에 들어 있던 고액의 상품권이 내 마음을 어지럽혔다. 나의 의견을 들어줄 과장님이 아님을 알고 있었고 상품권이 욕심나지 않는 것도 아니었다.

‘과장님과 의 언쟁이 이어지면 회사에 다니는 것도 불편해질 것이다. 백만 원이면 두 달 치 월세도 넘는 돈이 아니던가. 내가 고집부린다고 회사가 달라질 일도 없지 않은가?’ 나는 집에 돌아와서도 뜬눈으로 고민해야 했다.

길고 긴 밤을 하얗게 지새우고 나는 결국 출근을 하자마자 과장님께 봉투를 돌려 드렸다.

“과장님! 이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쪽 원단으로 정하면 침구의 가격이 40% 이상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샘플 만들 때 사용했던 원단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과장님은

“이불 많이 팔린다고 보너스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제품 가격 올라가는 것도 네가 상관할 바 아니잖아. 뭘 이렇게 말을 안 들어? 회사 그만 다니고 싶어?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뒤통 모르는 게 어디 상사를 가르치려 들어?”하고 언성을 높이셨지만 나는 내 뜻을 굽히지는 않았다.



나와 과장님의 다툼은 삽시간에 퍼져 나갔고 사장님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다. 결국 과장님은 회사를 그만두어야 했지만, 마지막 날까지

“어딜 가든 그리 꼬투리 잡고 융통성 없이 직장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대한민국은 관행이라는 게 있는 나라야! 주고받고 다 그리하며 사는 거지! 어디서 혼자 깨끗한 척이야? 너, 내가 이 회사 잘 다니게 놔두나 한번 봐라.”라고 말씀하면서 짐을 꾸리셨다.

암암리에 이루어지던 이러한 비리들은 비단 과장님 혼자만의 일은 아니었다. 연루되어 있던 다른 직원들이 꽤 있었고 나는 곧바로 파도림의 대상이 되었다. 양심을 지켰으니 잘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슬금슬금 나를 피하는 동료들 속에서 깨끗하게 회사를 다닐 용기까지는 낼 수 없었다.

사표를 냈지만 신입 사원에게 인수인계를 하는 데엔 며칠간의 말미가 필요했고, 퇴직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누군가가 나를 찾는다는 소리에 회사 로비로 내려가니, 샘플을 만들 때 사용했던 원단 업체의 사장님이 내게 손짓하고 계셨다.

“어이구! 고마워요. 오늘 원단 납품 결제 받았어요. 정말로 감사해요. 이진 정말 작은 거지만 선물이니 꼭 받아 줘요!”

종이 한 장조차도 받을 수 없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사장님은 극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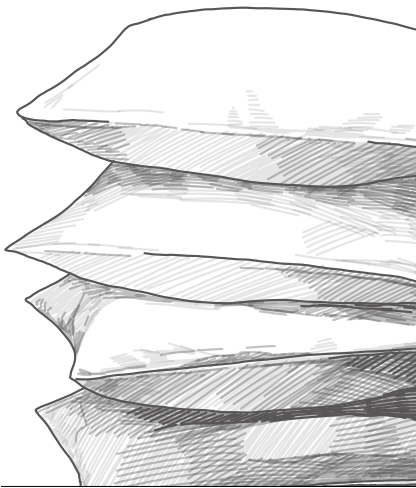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뇌물 같은 거 줄 수 있는 형편도 안 되는 회사라서... 그제 오랫동안 정직하게 장사를 해 오긴 했는데 사실 오늘 망하나, 내일 망하나 그러고 있었거든요. 우리 공장에서 남은 자투리 원단으로 아내가 베개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재 활용품은 팔수도 없는 거니 제발 받아 줘요.” 하며 사장님은 검정 비닐봉지 하나를 내 손에 쥐여 주시고는 저 멀리 뛰어가 버리셨다.

이를 뒤. 나의 젊음과 열정을 쏟아부으리라 결심하며 들어갔던 생애 첫 직장을, 나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퇴사하고 말았다. 다시 한참 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처지가 되자 때때로 후회가 밀려들었다. 나 하나로 그 회사가 달라질 것도 아니었는데, 관행이란 명목 아래 모두 다 그리한다던데, 나만 눈 질끈 감고 다녔으면 이리 고생하지는 않았을 텐데..... 더러는 내가 바보 같은 일을 한 것은 아니었나 싶었다.

그래도 잠자리에 누울 때마다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곤 했다.

현실은 늘 꿈과 다르고 먹고 살기 위해서 때로는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하는 일도 생기지만 그래도 양심만큼은, 정직만큼은 꿈과 희망보다 먼저 지켜야 할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가 아니던가.

꿈과 진로는 바뀔 수도 있지만 양심만큼은 움직여서도 변화해서도 안되는 절대적인 것임을, 나는 매일 밤 졸디졸은 자취방의 작은 침대에 누우며 깨달을 수 있었다.



삶은 찝찝했고

내일의 생활은

더 염려스러웠지만

재활용하였다는

그 베개를 베면

스르르 달콤한 잠에

빠질 수 있었다.



쌀쌀한 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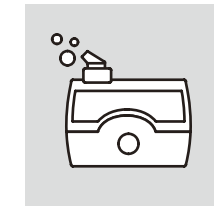


이렇게 대처하세요!

가을철 환절기 면역력 높이기

어느덧 무더위가 가시고, 가을이 찾아왔다. 계절이 바뀌고 일교차도 커지니 절로 몸이 움츠러들고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나 이런 환절기에는 갑작스러운 기후변화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다. 비염, 감기처럼 달갑지 않은 손님들을 피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따뜻하고 촉촉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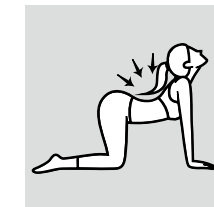


환절기에는 가슴이나 젖은 수건 등을 통해 실내 습도를 조절해야 한다. 건조할수록 비염과 감기에 걸리기 쉽기 때문이다. 또한 실내 온도 조절을 하여 신체 온도가 떨어지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만약 실내 온도 조절이 쉽지 않은 환경이라면, 얇은 겉옷을 상시 챙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Tip! 가을철 실내 적정 온도는 몇 도일까?

- + 가을철 실내 적정 온도는 18~22℃로 외부와의 온도 차가 5℃가 넘지 않는 것이 좋다.
- + 습도는 40~60%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활기차고 건강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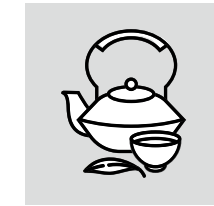


쌀쌀한 기온에 몸은 절로 움츠러들지만, 이럴 때일수록 활기차게 운동을 해야 한다. 환절기에는 면역력과 체력이 동시에 저하되니 일주일에 2~3회 이상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좋다. 매일 가까운 곳을 찾아 산책과 등산을 하는 것도 좋고, 집에서 요가와 스트레칭 등을 취미로 즐기는 것도 추천한다.

Tip! 몸의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스트레칭 <고양이 자세>

- + 어깨 밑에 손바닥을 활짝 편자세로, 골반 밑엔 무릎을 댄 네발 자세를 취한다.
- + 하늘을 바라보며 앞뒤로 척추를 길게 늘이는 느낌으로 가슴을 확장한다.
- + 다시 1번의 동작으로 돌아간다.
- + 꼬리뼈부터 복부에 힘을 주어 등을 동그랗게 말아간다.

따뜻하고 원활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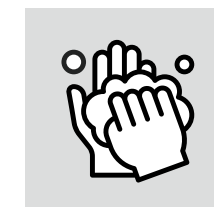


따뜻한 차 한 잔으로 환절기를 보내는 건 어떨까. 기관지와 면역력에 좋은 가을 제철 재료인 배, 대추, 모과 등을 차로 마시며 포근하게 몸을 보호해보자. 신경쇠약, 무기력 극복에 좋은 대추차와 피로회복, 감기 예방에 좋은 모과차를 마시며 움츠러든 신체가 원활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

Tip! 목 건강에 좋은 차 4가지

- + 목 염증 완화에 좋은 유자차
- + 갈증 해소에 좋은 감잎차
- + 호흡기 질환에 좋은 배도라지차
- + 기침에 좋은 모과차

주기적이고 깨끗하게



면역력에 가장 좋은 것은 청결한 개인위생이다. 매일 손 씻기만 제대로 해도 각종 외부 세균으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히 씻고, 눈, 코, 입을 자주 만지지 않는 게 좋다. 개인위생을 청결히 하는 걸 생활화하는 것만큼 가을철 환절기를 똑똑히 보내는 방법은 없다.

Tip! 올바른 기침 예절은 무엇일까?

-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한다.
- +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린다.
- + 기침 후에는 손을 씻어야 한다.
- +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생각함을 활용하여 ‘제1회 민(원)·데(이터) 백일장’을 개최했다.
나만의 데이터 해석력(Literacy)을 뽐내는 이벤트로 2020년 상반기 주요 민원 키워드를 1개 이상 골라 글짓기를 하는 것이다.
이번 백일장을 통해 민원 키워드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생각과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었다.
가을호에서는 시사성과 재치 있는 해석이 돋보이는 입선작들을 소개한다.

국민의 생각이 정책이 됩니다

국민생각함 활용 이벤트

국민권익위원회
‘제1회 민·데 백일장’

민원 키워드

쓰레기 의료진 아파트 시험 방학
문화생활 돌봄 여가 마스크 착용
불법주차 수험생 교통대책 생활방역
일자리 사회적 거리 육아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 빅데이터 분석이란?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여 국민의 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민원분석 정보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를 통해 국민에게 개방하여 데이터 이용 활성화

[주요 입선작]



참여자 : Ssoi Kim

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재미있는 곳도 좋고
회 회식에서 맛있는 음식 먹는 것도 좋지만
적 적응해 보아요. 이제는 우리 함께
거 거리두기로 현명하게 코로나를
리 이겨내요



참여자 : 백승민

생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
활 활동의 제약으로 힘들지만
방 방심하지 말고 우리 모두의
역 역할은 생활방역 실천입니다

참여자 : 권보희

안전하게 **사회적 거리**는 더 늘리고(+)
코로나19의 위험은 최대한 줄이고(-)
일자리는 배가 되고(×)
의료진에 대한 감사의 마음 함께 나누는(÷)
행복한 사척연산을 만들어가요!



참여자 : 배철희

내가 하면 주차센스 셀카 찍어 인스타go
내가 하면 **불법주차** 사진 찍어 경찰신고
길거리 내로남불歌 언제까지 봐야해

참여자 : 이영숙

돌봄이라는 말은 보통 어려운 사람,
또는 사회적 약자에게 해당되는 말이었지만
이제는 모두가 서로를 돌봄으로써
힘겨운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가 되고 있습니다.

참여자 : 유준혁

희랍신화의 마이다스는 손으로 만지는 것을
황금으로 변하게 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만지는 것 마다
쓰레기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생활 속 지혜로 함께 **쓰레기**를 줄여보아요.

참여자 : 정아김

예전엔 대화할 때 마스크 벗는 게 예의.
지금 언제든 어디서든 마스크 쓰는 것이 예의.
너와 나 모두를 위해 **마스크 착용** 합시다.



참여자 : 김태영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공백기가 아닌,
우리에게 찾아온 인생의 **방학**
우리 잠시 쉬어가는 건 어떨까요.





성공과 경쟁은 타인을 동반한다. 내 삶, 내 시간에 나 이외의 비교 대상이 필요한 치열한 전쟁과 다름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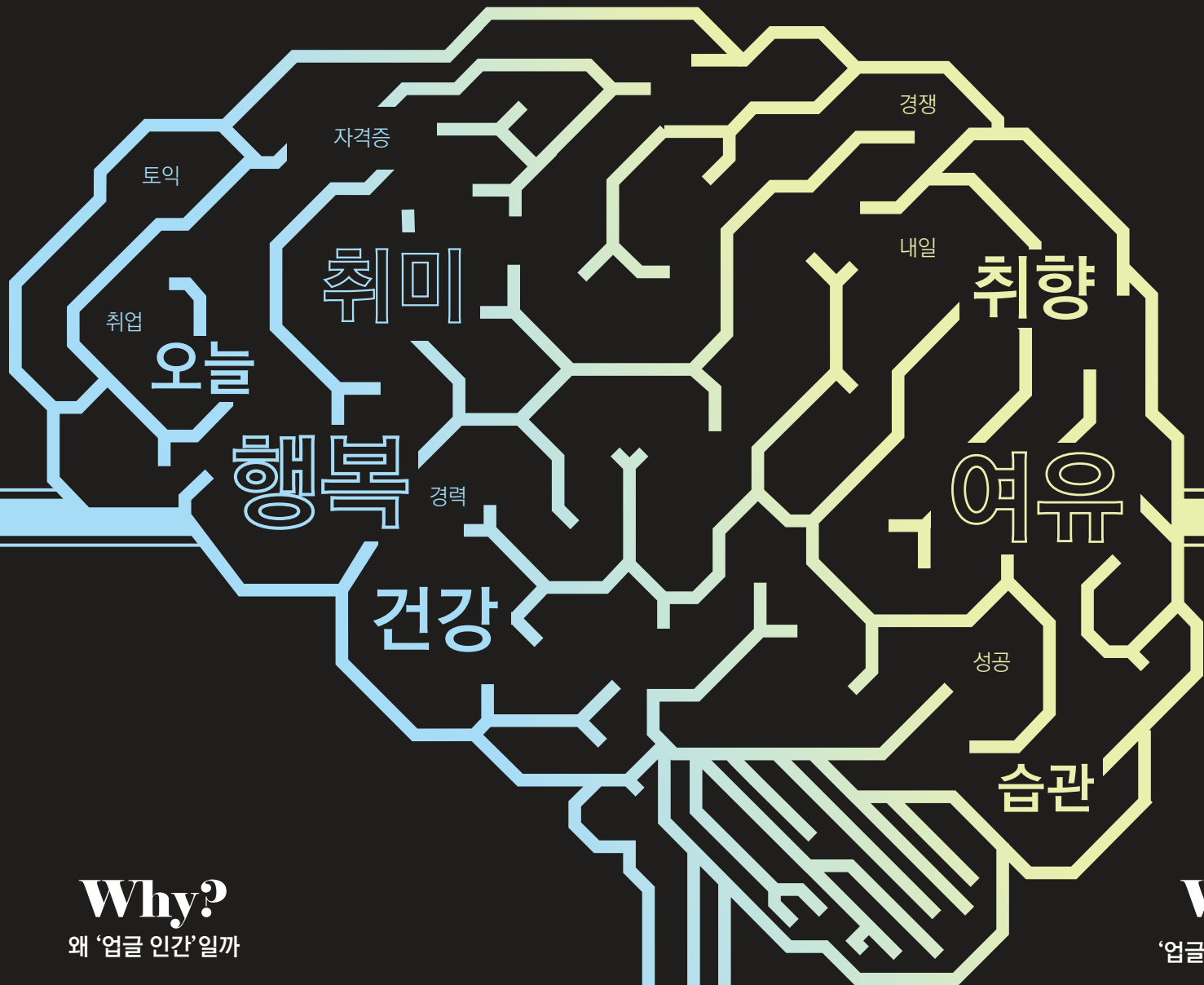
무수히 흘린 땀방울은 커다란 가치와 행운을 안겨다 줄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놓친 행복과 성장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남들보다 나은 나’가 아닌 ‘어제보다 나은 나’를 추구하는 사람들, ‘업글 인간’.

우린 이들의 모습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스펙 <성장> Upgrade...



업글 인간 행복을 추구하는

Who?

‘업글 인간’은 누구일까

‘Upgrade’와 ‘인간’을 합친 말로, 성장을 추구하는 자기개발형 사람을 일컫는 단어다. 이들은 타인과 경쟁하며 승리하기 위해 스펙을 축적하는 것이 아닌, 삶의 질적 변화와 성장을 추구한다. 자신의 건강과 취미·여가활동, 지적 성장을 위한 소비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특징을 지녔으며, 2020년 소비트렌드를 대표하는 키워드 중 하나이다.

Why?

왜 ‘업글 인간’일까

‘업글 인간’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워라벨(Work Life Balance : 일과 삶의 균형)’을 이와 같은 변화의 이유로 꼽는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여유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이다. 입시·취업과 같은 과도한 경쟁을 벗어나 온전히 자신에게 투자하는 현재의 흐름은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

What?

‘업글 인간’은 무얼 할까

‘성공’이라는 불투명한 미래보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지금의 ‘행복’을 추구하는 ‘업글 인간’. 그들의 여가시간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다. 매일 1시간씩 운동하기, 프랑스 자수 배우기, 인물화 그리기 등 직무나 학업과 관계없이 자신의 일상과 습관을 성장시킨다. 이와 같은 면에서 스펙업과 업글 인간의 차이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How?

‘업글 인간’은 어떻게 시작할까

성장하기 위한 시작이 거창해야 할 것 같은 부담은 내려놓아도 좋다. 이제부터 ‘업글 인간’이 되기로 했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하루에 물 2ℓ 이상 마시기, 하루에 10분 이상 취미 활동하기, 한 달에 책 1권 이상 읽기 등 자신 없어 하던 것과 미뤘었던 취미도 좋다. 무엇이든 당신을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나로 만들어 줄 것이다.



ACRC 대하드라마

대하 요리

가을의 별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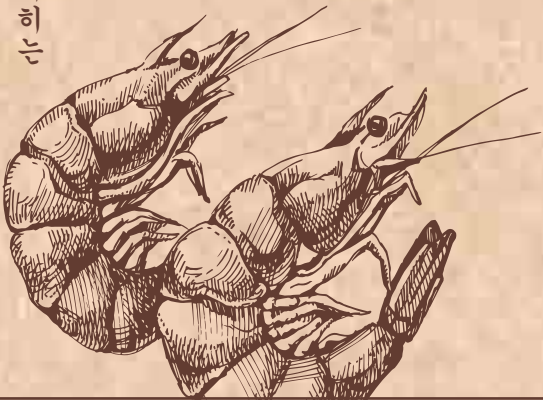
감바스알 아히요



Slate # 1 .

스페인 요리로 걸 보기에 어려워 보이나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음식이다.
이국적이면서 만들기 쉽기 때문에
집에서 만들어 먹기 좋다.

경자년(庚子年) 가을,
우리의 입맛을 바로잡을
단 하나의 별미(別味).
사라져버린 식욕을 되돌릴
탕을탕을 식감의 향연(饗宴).
지금, 대하와 함께 그려갈 숨 막히는
맛의 열전(熱戰)이 시작된다.



요리재료 [2인 기준]

대하 6~8마리, 올리브오일 1컵, 마늘 7쪽, 양송이버섯 3개,
방울토마토 3개, 페페론치노 2개, 소금·후추 약간,
로즈메리, 바게트 빵

요리방법

- ① 손질한 대하에 약간의 소금, 후추를 뿌려 밑간을 해준다.
- ② 마늘은 편으로 썰고, 양송이버섯도 먹기 좋게 준비한다.
- ③ 냄비에 올리브오일과 마늘, 페페론치노를 넣고 중불에 2분가량 끓인다.
- ④ 마늘이 노릇해지면 양송이버섯과 대하, 방울토마토를 넣고 더 끓인다.
- ⑤ 다 익으면 불을 끄고 로즈메리와 바게트 빵을 올린다.

Slate # 2 .

타이의 대표적인 요리다.
간단한 식사로 먹을 수도 있고,
반찬이나 후식도 된다.
설탕과 레몬즙을 넣어 단맛과
새콤한 맛이 나는 것이 특징이다.

팟타이



요리재료 [2인 기준]

스파게티 150g, 바지락 10~15개, 대하 5마리, 방울토마토 5개,
청양고추 2개, 마늘 2개, 양파 1/2개, 토마토소스 5큰술, 생크림 2컵,
파르메산치즈가루 1큰술, 파슬리가루 약간, 올리브오일 약간,
소금·후추 약간

요리방법

- ① 바지락은 소금물에 담가 해감하고, 대하는 수염을 자르고 내장을 이쑤시개로 빼낸다. 방울토마토는 3등분하고 청양고추는 링으로 썰어준다. 마늘은 편으로 썰고 양파는 채 썰어준다.
- ② 스파게티는 끓는 물에 소금과 올리브오일을 넣고 7~8분간 삶은 후 바로 그릇에 담아 올리브오일을 뿌린다.
- ③ 달군 팬에 올리브오일을 두르고 청양고추, 마늘, 양파를 소금, 후추로 간을 해 볶는다.
- ④ 바지락과 대하를 넣고 소금, 후추로 간을 해 볶아준다.
- ⑤ 해물이 익으면 토마토소스와 생크림, 삶은 스파게티, 방울토마토를 넣고 볶는다.
- ⑥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하고 파르메산치즈가루와 파슬리가루를 뿌려 마무리한다.

요리재료 [4인 기준]

쌀국수 180g, 대하 100g, 숙주나물 30g, 달걀 1개,
다진 마늘과 다진 양파 2큰술씩, 식용유 3큰술, 레몬즙 2큰술,
피시소스 1/2큰술, 팟타이소스 1큰술, 칠리소스 1큰술,
설탕 1/2작은술, 다진 땅콩 2큰술, 민트 잎

요리방법

- ① 쌀국수를 20~30분 동안 물에 불린 다음 건져서 물기를 빼 놓는다.
- ② 숙주나물은 뿌리 부분을 깨끗이 다듬고 씻는다.
- ③ 팬에 기름을 두르고 뜨겁게 달구어 달걀을 풀어 넣은 후 젓가락으로 저으면서 볶는다.
- ④ 다른 팬에 기름을 넣고 마늘과 양파를 노릇노릇하게 볶아 향을 낸다. 여기에 손질한 대하를 넣고 분홍색으로 변할 때까지 1~2분 정도 볶는다.
- ⑤ 대하가 익으면 쌀국수와 숙주나물을 넣고 다시 볶는다.
- ⑥ 국수가 부드러워지면 레몬즙·피시소스·팟타이소스·칠리소스·설탕을 넣어 간을 맞춘다.
- ⑦ 볶은 달걀과 땅콩을 넣고 잘 섞는다. 그릇에 담은 후 민트 잎을 엮는다.

해산물로 제 파스타



Slate # 3 .

토마토소스와 크림소스가 함께 어우러진 파스타다.
토마토의 상큼함과 크림소스의 부드럽고 고소한 맛,
여기에 다채로운 해산물까지 더해져
풍성한 식감을 자랑한다.



지난 2020년 <여름호>를 읽고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입니다.

이희진
(경북 영천시)

사연(수기) '별이 빛나는 밤'이 좋았습니다. 참 오랜만에 감동적인 수기를 읽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늘나라에서도 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겁니다. 혼자 읽으면서 괜스리 눈물이 났습니다. 글쓰기,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저도, 우리 모두가 함께 청렴하게 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신성용
(광주시 북구)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부정청탁의 개념과 “법원의 판결과 결정”의 사례를 통해서 정확하게 부정청탁의 개념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해도가 훨씬 높아져서 좋았습니다. 직원들 교육시 사례 관리로 사용해도 좋을 듯 합니다.

오은경
(부산시 연제구)

<청백리포터> 코너가 좋았습니다.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로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는데,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복지가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부모의 마음과 입장에서 작은 것 하나까지 경청하며 부모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최은순
(전북 남원시)

정부민원에 대한 궁금증을 한 곳에서 한 번에! 해결해주는 고충상담기획과의 반가운 소식 잘 읽었습니다. 국민이 몰라서 놓치는 권리가 없도록 돕는 일, 민원상담의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상담관들과 함께 최적의 민원상담 환경을 만들어가는 고충상담기획과의 무궁한 발전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선지은
(서울시 동작구)

코로나19로 대면접촉을 피하기 위해 식료품 주문배송을 자주하게 되는데 그 때마다 딸려오는 아이스팩이 고민중 하나였습니다. 국민생각함 활동 우수사례를 보니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이 많네요. 단순히 생각에 그치지 않고 의견을 제시해 정책으로 실현된 경우라서 더 의미있게 다가옵니다. 국민생각함에서 누구나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과 협업을 거쳐 정책으로 실현된다니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국민권익>을 꼼꼼히 읽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QUIZ.

‘○○○ ○○○’은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민원 업무 관련 상담과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표 정부민원안내 상담서비스다.

지난호 정답	청렴포털	
정답자	송나영(경남 밀양시) 홍종선(서울시 중랑구) 장우익(강원도 동해시)	이지영(제주도 서귀포시) 조한석(경기도 의정부시)

<국민권익>을 읽고 소감과 의견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각 다섯 분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국민권익>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기간 | 2020. 9. 1. ~ 11. 30.

대 상 |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신고방법 인터넷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방 문 : 세종 종합민원사무소,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

신고상담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 110

|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

▲복지분야(기초생활보장급여, 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장기요양급여 등) ▲산업분야(연구개발비 등)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농·축·임업분야 ▲기타분야(건설교통·교육·문화관광 등) 등



국민권익위원회

우편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연락처



국민권익

2020 AUTUMN Vol.66

받는 사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 담당자 앞



국민의 물음
내일의 답이 되다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 한국 실현

국민권익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국민권익>

더 나은 <국민권익>을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작은 목소리도 더 크게, 더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권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2. <국민권익> 가을호에서 가장 좋았던 기사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3. <국민권익>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2020년 가을호

권익위 열독왕 QUIZ 정답 :



<국민권익>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 국민권익소식지 혹은 정책홍보 - 국민권익소식지